

발음 사전의 특성과 활용 방안

안 상 철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1.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우리 국어의 발음에 관한 발음 사전의 필요성과 그 활용 방안, 그리고 이제까지 출판된 각종 발음 사전의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발음 사전 전반에 관한 특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우선 우리말은 체계 높고라도 외국어의 경우에도 발음 사전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고 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상상 외로 언어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것이다. 왜냐 하면 각종 시험이나 교양에 필요한 발음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전을 보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 사전은 기타 필요한 어원, 문법적 정보, 예문 등을 고루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사전은 잡다한 내용을 고루 수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최근에 쉽게 볼 수 있는 동의어 사전, 반의어 사전, 어원 사전, 용례 사전 등 다양한 사전이 필요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의 철자를 거꾸로 풀어서 수록한 역순 사전까지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발음의 경우에도 많은 외국어의 어휘가 철자만 가지고는 발음을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흔할 뿐 아니라, 실제 쓰이는 대화체의 발음이 인위적으로 발음되는 철자에 의한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 사전에서 찾아 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특정 어휘의 발음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 일반 사전에 모두 수록한다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할 발음 사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국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서 수많은 어휘가 일반 사전에조차 발음 표시가 생략된 채로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발음 사전의 필요성은 고사하고 이러한 사전이 있는지도조차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국어의 철자 체계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와는 달리 비교적 실제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영어와 같은 외국어의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등 특정 고유 명사 뿐 아니라 생소한 단어를 철자만을 보고서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 국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발음으로 인해 생기는 커다란 의사 소통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학교 교육에서조차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많은 외국어의 일반 사전이 철자와 함께 발음 표기를 같이 하고 있는 데 비해 대부분의 우리말 사전은 철자만을 표기하고 발음은 철자에 의존하도록 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에 국민학교 등에서 모음의 장단, 고저 등을 인위적으로 가르치려 시도한 적이 있었고 또한 여러 사전에도 이러한 정보를 수록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이나 방송인의 연수와 같은 특수 목적을 위한 발음 훈련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나 사전의 편찬 방법이 독자적인 객관적 자료 수집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다른 사전을 모방하거나 현실적인 발음을 무시하고 규범에 입각한 기술을 시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전마다 그 표기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거나 구태의연한 규범적 발음을 고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 발음의 지역적 차이나 형태 음운 규칙에 의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규범만을 고집하여 국어 순화에만 관심을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는 물론 외국인이 정확한 우리말 발음의 실태를 참조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외국어, 특히 영어의 발음 사전과 우리 국어의 발음 사전 중 대표적인 것을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음 사전이 갖추어야 할 내용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발음 사전의 편찬 기준

어떠한 사전이든지 사전의 가장 주된 기능은 표준 어휘를 선정하여야 하며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충분히 기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변이 형태를 수록하여 이를 활용하는 데 있다. 세계의 여러 선진 문화권에서는 일찍이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발음 사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모두 그들 언어의 훌륭한 발음 사전을 편찬해 왔다. 이를테면 영어의 경우 일찍이 1917년 경에 영국에서 Daniel Jones의 *English Pronouncing Dictionary*가 출판되었고 미국에서는 1944년 Myra Pow Kenyon과 Myra Powers Knott의 공저인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가 만들어져 전세계적으로 영어 표준 발음의 길잡이 노릇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최근 J.C. Wells(1990)의 *Longman Pronunciation Dictionary*가 나오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한편 우리말의 발음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고 1984년 남광우, 이철수, 유만근 공저의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이 출간되었다. 이후 최근 들어 이은정(1992), 전영우(1992)등의 발음 사전이 더 출판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특정 분야의 독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발음 표시 등에 있어 객관적인 국제 음성 표기를 결여하는 등 본격적인 발음 사전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¹⁾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어와 우리말의 대표적 사전을 중심으로 발음 사전의 편찬 원칙 등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발음 사전의 구성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2.1 표제어 항목의 선정

발음 사전의 표제어(head words)는 당연히 그 언어권에서 쓰이는 표준 어휘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Kenyon & Knott(1944)의 미국 영어 발음 사전이나, Wells(1990)의 영국 표준 발음 사전 등이 모두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Kenyon & Knott의 사전은 미국 영어 어휘에 대한 표준 발음의 지침서로 볼

1) 예를 들어 이은정(1992)의 '우리말 발음 사전'은 인명, 지명, 특히 철도역 이름, 지하철역 이름 등을 상세히 표기한 것이 특징인데, 발음 표기에 있어 한글 철자를 사용하여 국제 음성 기호를 사용한 다른 발음 사전에 비해 사용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있다. 우리말 발음 사전의 경우에도 남광우, 이철수, 유만근 공저(1984)의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도 이러한 표준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또한 일반 사전에 수록하기 힘든 지명, 인명 등 고유 명사의 발음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발음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발음 사전의 경우 Wells(1990)의 사전이 Kenyon & Knott의 사전과 유사한데 특히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된 Chomsky, Reagan 등의 영어권 이름 뿐 아니라 Thatcherism과 같이 고유 명사에서 파생된 어휘, Gorbachev, Kiev, Sapporo와 같은 비영어권의 고유 명사도 원어의 발음과 함께 수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서울(Seoul), 평양(Pyongyang) 등도 등록되어 있다.²⁾ 또한 TESOL, T-cell 등의 전문 어휘나 약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표제어의 배열 순서는 서양의 언어가 로마자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말 사전의 경우는 모두 한글의 자모순을 택하고 있으며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많은 일반 사전들이 고어의 표기를 위해 'ㅅㅅ, ㅅㅅ, ㅅㅅ, ㅅ, ㅅ, ㅅ' 등의 첫소리 뿐 아니라 'ㅇ, ㅈ, ㅊ' 등의 가운데 소리, 'ㄹㅈ, ㄹㅊ' 등의 끝소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발음 사전의 경우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특히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참조)

2.2 발음 표기

2.2.1 기준 발음 설정

발음 표기의 기준은 역시 절대 다수의 화자가 사용하는 표준 발음이 되어야 한다. 이 점도 모든 발음 사전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소리의 기준을 철자와 가까운 낭독체의 말과 실제 대화에 쓰이는 대화체의 말,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딱딱하고 인위적인 낭독체에 얽매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것은 흘려서 발음하는 말이나 저속한 발음을 제외한 것이다.

영어의 경우, Kenyon & Knott의 것은 문어체가 아닌 대화체의 표준 영어 발음을

2) 예를 들어 '서울'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영어식으로 발음될 때는 단음절이지만 한국어에서는 2음절로 발음됨을 나타내고 있다.

Seoul *saw* → Korean [*'səul*]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Webster 사전(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은 발음의 표기에 있어 정확하고 격식을 갖춘 규범적 발음(formal platform speech)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덜 격식을 갖춘 대화체의 발음들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전의 편찬자들에 의하면 '연속 발화(connected spoken discourse)', 즉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말(running speech)을 표기하는 것은 사전의 성격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Kenyon-Knott의 발음 사전은 소위 말하는 일상 생활의 '쉬운 영어(easy English)', 또는 '체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the speech of well-bred ease)'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소리에 의한 소리의 변화와 억양, 템포, 리듬에 의한 소리의 변이 형태를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부주의한 말이나 조잡한 말뿐 아니라 격식을 갖춘 딱딱한 말들을 모두 제외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어휘가 일상의 구어체나 격식을 갖춘 말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사전의 발음 표기와 발음 사전에 수록된 표기가 같게 된다. 그러나 결국 두 가지 사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화체의 발음과 격식을 갖춘 딱딱한 발음에 각각 기준을 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한편 발음 사전의 특성상 자주 쓰이는 속어가 아닌 비표준적인 표현 등도 포괄적인 기술을 위해 어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 발음도 함께 수록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음 사전의 모양이다. 영어의 예를 들면 Kenyon과 Knott의 발음 사전은 미국에서 쓰이는 일상 대화체의 영어를 대상으로 표제어의 발음이 조사되어 있다. 즉 이 사전이 일차적으로는 미국 영어의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서로 계획되었다기보다 표준 발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리를 모아 충실히 기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의 언어 지리도(Linguistic Atla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를 기초로 표준 발음에 대한 광범한 자료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준 발음을 먼저 선정하고 각 지방의 방언적 변이음은 그 뒤에 표기하여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Wells(1990)의 경우에는 언어 지리적인 각 지방의 방언적 변이형은 지역별로 크게 나누지 않고 특별한 경우 이를 수록한다. 그러나 고유 명사를 수록함에 있어서

3) 그러나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의 경우는 그대로 격식을 갖춘 형식적인 어투의 발음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구어체에서 자주 쓰이는 advise와 같은 어휘는 강세를 갖지 않는 첫음절의 모음이 약하게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나, ahdhibit '접수하다'의 경우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강세를 갖지 않는 첫음절의 모음도 정확히 발음하도록 기술되고 있다.

는 미국 영어 발음은 물론, 지명이나 인명 등의 특수한 경우는 아일랜드식 발음이 나 호주식 발음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⁴⁾

한편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의 경우 이러한 발음의 지역적 변이형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들이 표준말의 발음을 정확히 계몽하고자 하는 데 이 사전의 주목적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우리 말 소리 체계의 포괄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조사에 입각한 지역적 발음의 변이형에 대한 수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음 체계가 다른 영, 호남, 제주 방언이나, 경상 방언의 성조 등은 많은 자료 조사를 요하는 일이나 한국어의 정확한 기술을 위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교과서 등에 등장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해 볼 수 있는 '훈'과 같은 고어(古語) 동도 수록하는 것이 외국인 뿐 아니라 순수 모국어 화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발음 기준의 설정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표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자료 조사를 통해 화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Wells의 사전에는 여러 발음의 변이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영국 전역에 걸쳐 275명의 토박이 화자를 선정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음성/언어학자 뿐 아니라, 학생, 방송인, 배우, 과학자, 외교관, 법관, 일반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선정되었는데, 지역적으로 고루 안배가 되었고 연령별로도 15세에서 80세까지 망라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economic 이라는 단어는 [i:kə'nɒmɪk]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ɛkə'nɒmɪk]으로 발음되는 경향보다 훨씬 우세함을 보여 준다.('이 기호는 제1 강세, 'ɛ'는 제2 강세, 'ɛ' 기호는 파생에 의한 강세 변화를 나타낸다.)

(1) economic i:kə'nɒmɪk ◀ ɛk- || -'nɒ:m-

4) 즉, 영국의 표준 발음인 RP와 그 변이형이 먼저 표기되고 미국 영어의 발음은 별도로 || 기호로 표시한다.

예 : balk bɔ:k bɔ:lɪk || bɔ:k bɑ:k

또한 방언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고유명사는 따로 명시한다.

예 : Melbourne (i) 'mel bɔ:rn || -bɔ:rn,

(ii) 'melb ɔn || -ɔrn - - The places in Cambridgeshire and Derbyshire are

(i). The places in Australia is (ii) locally, but is often called (i) by non-Australians.

5) 물론 소리의 변이형을 포함시킨 것도 사실이나 이는 지역적 발음의 변이음이 아니라 개인차에 따른 개별 변이음(ideolect)일 뿐이다.

~al 키 ~ss -BrE poll panel preference: ɪ:k-62%, ɪek- 38%

2.2.2 표기 방법

표제어의 발음 표기에 있어서는 모든 발음 사전들이 발음 표기의 보편성을 위해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의 예를 들면 Kenyon-Knott의 발음 사전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Webster 사전과 달리 위해 IPA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Webster 사전, 즉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는 미국 영어의 특징적인 발음 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독창적인 발음 기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해 Kenyon & Knott의 것은 좀더 보편적인 발음 표기를 위한 의도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말 발음 사전의 경우에는 IPA와 병용해서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도 발음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국제 음성 기호인 IPA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들이 한글 발음 표기만을 보고 쉽게 표준 발음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함이다. 따라서 한글 발음 표시는 음운적 단계의 차이를 기술하는 간략 표기(broad transcription)를 위해 쓰이고, IPA에 의한 발음 표기는 세부적인 음성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밀 표기(narrow transcription)를 위해 사용된다.⁶⁾ 예를 들어 국어에서는 ‘ㄱ, ㄷ, ㅂ, ㅈ’등의 파열음이나 파찰음이 첫소리로 발음될 때에는 무성음[k, t, p, tʃ]로 나타나지만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g, d, b, dʒ] 등으로 발음되므로 이를 IPA로 구별하여 표기한다. ‘ㄹ’의 경우에도 첫소리로 나는 [l]과 유성음간에서 나는 [r]을 구분한다. 또한 구개음화에 의한 ‘ㄴ, ㄹ, ㅅ’의 변화는 [s, ʃ, ʒ] 등으로 하여 표기한다. 한편 긴 소리를 ‘:’로 표기한다든가 기음(氣音, aspirated sound)을 [ʰ]로 표기하고 된소리(또는 성문음)를 자음 뒤에(ʷ)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 등은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에서는 표준 음성 기호인 [k, t, p, tʃ] 대신 ɡ, ɖ, ɓ, ʒ)을 사용하고 있다.)

(2) 가.	무성음	유성음
‘ㄱ’	가을[ɡaʊl]	얼굴[ʌŋɡʊl]
‘ㄷ’	달 [dʌl]	바다[bʌda]

6) 이를 각각 음운 표기(phonemic transcription)와 음성 표기(phonetic transcription)로 부를 수 있다.

‘ㅂ’ 바람[b̥aram] 지붕[ʝibuŋ]
 ‘ㅈ’ 집 [ʝit̚] 가지[g̊aʝi]

나. 비구개음 구개음
 ‘ㄴ’ 날[nal] 어머니[ʌmʌni]
 ‘ㄹ’ 말[mal] 빨리[p̚'aʎli]
 ‘ㅅ’ 사람[sɑ:ram] 시[ʝi]

표기의 순서는 표제어를 맨 앞에 수록하고 그 다음에 표준 발음과 기타 가능한 변이음을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Kenyon & Knott에서는 표제어(head word)가 맨 앞에 나오고 구둣점 없이 바로 발음이 고딕체로 표기된다. 그러나 품사 판정에 혼동이 올 우려가 있는 어휘에는 표제어 위에 품사를 표기한다. 고유 명사, 보통 명사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대문자, 소문자를 함께 표기한다. 또한 변이음은 ‘뒤에 이어 표기한다.

(3) clarion, C- 'klæɪən 또는 Cologne, c- kə'ɛn
 Naomi 'neə, maɪ, ne'oma, -mɪ, -mə

Wells의 경우에는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상이한 경우 영국식 발음(BrE)을 먼저 표기하고 미국식 발음(AmE)을 ㄱ 뒤에 표기한다.⁷⁾

(4) BrE AmE
 batter 'bæt ə ㄱ || 'bæɫ ə r
 bender 'bend ə ㄱ || -ə r

한편 우리말의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은 표제어를 맨 앞에 표시하고 한자어인

7) 또한 모든 주 발음(main pronunciation)은 청색으로 앞에 표기하고, 변이음은 그 뒤에 흑색으로 표시한다. 지역에 따른 변이음도 이 위에 같이 수록한다. 또한 널리 쓰이고는 있으나 RP(Received Pronunciation), 즉 영국 영어의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ㅎ기호 뒤에, 옳지 못한 발음은 !기호 뒤에 따로 표기한다.

bath n ba:θ ㅎ bæθ || bæθ
 grievous 'gri:v əs !'grviəs

경우 또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 등은 괄호 속에 이를 명시한다. 발음 표시는 이 뒤를 따르는데 한글 발음 표시를 먼저 하고 IPA를 그 다음에 []속에 표시한다. 즉 발음 기호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우리말 화자를 위해서는 한글 발음 표기를 전문가나 외국인을 위해서는 IPA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표제어의 철자와 한글 발음 표시가 같은 경우는 기술의 간결성을 위해 IPA만 사용한다. 또한 장음 표기는 한글과 IPA 모두에 ‘:’를 사용하며 두 가지 발음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사선 ‘/’으로 구분한다. 발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의적인 경우에는 괄호로 표시한다.

(5) 신문로(新門路) 신문노/신물로 [ʃɪnmunno/—mullo]

동방(同邦/東方) [dɔŋbaŋ]

배제(排除) 배(:)제 [bɛ(:)ʃe]

2.2.3 표기 범위

발음 표시의 범위는 모든 발음 사전들이 우선 개별 단어의 발음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이들의 활용, 파생형을 같이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Kenyon & Knott나 Wells의 발음 사전에서는 모두 용언의 활용이나 파생 관계는 수직선으로 표시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만 표시하여 표기의 복잡성을 피하였다. 물론 어미 부분을 정확히 이어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잘라 붙이기(cutting back)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분이 시작하는 철자부터 이어 쓴다. 다음의 예는 Kenyon & Knott의 것이다.⁸⁾

(6) thin 'θɪn | thinned 'θɪnd | -ness 'θɪnɪs

quarry 'kwɔrɪ | -ied -ɪd, i.e., quarried 'kwɔrɪd

housewife 'hausɪ, waɪf | -ves -vz, i.e., housewives 'hausɪ waɪvz

8) 영어 발음 사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동사의 불규칙 활용 형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Kenyon & Knott에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순으로 배열하는 점은 일반 사전과 같다.(물론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원형 뒤에 표기한다.)

drive draɪv | drove drov | driven 'drɪvən

sing sɪŋ | sang sæŋ or sung sʌŋ | sung sʌŋ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에서는 체언에 토가 붙거나 파생접사에 비해 발음이 변하는 것을 그 용례를 보이고 발음을 표시하였다(▼기호는 반장음(半長音)표시를 나타낸다).

- (7) 가<가장자리(邊)> 가:[g̊a]
 —없는(하늘) 가:엎는 [g̊a:ə▼mnuwŋ]
 강(江)—강까[g̊aŋk'a]

용언의 활용, 파생도 변동하는 발음의 용례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 용언의 경우 일반 사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명시하였다.

- (8) 겹다[ㅂ변] 겹:따[g̊jəbt'a]
 —고 겹:꼬/겹:꾸[-k'o/-k'u]
 —지 겹:찌[-ci]
 겨워 [g̊jawa]
 겨운 [g̊jauŋ]

끝으로 외래어의 표기를 위해서는 모국어와 같이 쓰이는 외래어 어휘는 대부분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때 원래 외국어의 원음을 차용어로서의 현실음의 뒤에 덧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즉 영어의 경우 Kenyon & Knott에서는 가능한 한 전통적으로 쓰이는 외래어의 영어식 발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 명사 등에 대한 발음의 차이나 외래어의 어원을 이탤릭으로 나타낸다.

- (9) Lodi *US* 'lɔdɑː ; 'Itali' lɔdi (It 'lɔ di)
 voyageur *Fr* vɔʒa ʒæ:r

그러나 cum laude ‘우등으로’⁹⁾와 같은 라틴어 어휘는 보통 구어체에 쓰이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의 수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Wells의 경우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대로 외래어의 원음을 영어식 발음 뒤에 표

9) ‘with honors’라는 표현과 같다. 그러나 졸업 증서 등의 격식을 갖춘 문서에는 라틴어 표현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우리말에서 전문 용어등으로 한자어를 사용해 온 관습과 유사하다.

기한다.

- (10) Saussure səʊ 'sjʊr -- 'sʊə || soʊ' sjʊ'r - su'r -- Fr [so sy: ʃ]
 Moselle məʊ 'zel || moʊ - -- Fr [mo zɛl], Ger Mose [mo:zʃ]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에서는 우리말처럼 쓰이는 한자어는 순수 국어 어휘와 같이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한자나 어원으로 간주되는 한자를 괄호 속에 표기하여 순수 국어 어휘와 구분도 하고 동음 이의어(同音異意語)를 분류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의(7)에서 ‘강가’의 첫자가 ‘江’이고 둘째자가 ‘家’가 아니라 ‘가장자리(邊)’를 나타내는 경우 경음화된 발음 ‘강까’가 됨을 나타낸다. 또 한 어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종종 한자를 같이 표기한다.

- (11) 가난 <←간난(艱難)> [gʌnnan]

한편 한글 철자가 같고 한자 철자만 다른 동음 이의어는 (12가)처럼 하나의 한글 표제어로 수록할 수 있으나 길이 등 소리가 다르거나 용례가 다른 것은(12나)처럼 별도 표제어를 사용한다.

- (12) 가. 단절(短折/斷折/斷絶/斷切) [dʌnʃʌl]

나. 단음(單音) 다듬[dʌnum]

단음(短音) 다(:)듬[dʌ(:)num]

단음(斷飲) 다:눔[dʌ:nʌm]

단음(斷音) 다:눔[dʌ:nʌm]

— 기호(記號) 다:눔기호[---giho]

— 주법(奏法) 다:눔주뎁[---ju'p'ʌb]

끝으로 품사 분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발음 사전의 특성상 의미의 혼동이 올 수 있는 경우만 표시를 해 주고 있다. 우리말 발음 사전인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에서도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다음(13가)과 같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품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괄호 속의 한자어나 용례 등에 의해 분명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13나)에서 처럼 굳이 품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13) 가. 가만 [부] [gaman]

—— 가만 [부] [---gaman]

—— 가만히 [부] 가만가만(:)히/---가마(:)니
[---gama(:)nhi]

—— [부] 가만(:)히/가마(:)니
[gama(:)nhi]

나. 가문(가문/가문) [gamun]

다. 가물 [gamul]

—— 타다 [— tʰada]

3. 발음 사전의 체제와 내용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 발음 사전을 토대로 국어 발음 사전이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와 내용, 그리고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 본다.

3.1 구성

발음 사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 서문

일러두기

본문

(부록-외래어 발음 표기와 원음 대조표)

다른 일반 사전과 마찬가지로 서문이 사전의 맨 처음에 소개되어 이 사전의 편찬 경위, 기본 방침 등을 간단히 밝혀 주어야 한다. 물론 상세한 세부 사항은 다음 '일러두기' 부분에서 기술한다.

'일러두기' 부분은 이 사전의 편찬 원칙, 사용법, 필요한 도표 및 기호 등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본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들어 갈 세부 사항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본문 내용은 일러두기에서 제시된 원칙에 의해 각 어휘 항목을 작성한다. 여기에

서 한자어를 제외한 서양 외국어나 일본어의 차용어 등은 우리말처럼 쓰이는 어휘는 본문 속에 국어 어휘나 한자어 어휘와 같이 수록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끝으로 부록 부분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어를 제외한 기타 외래어의 원음과 국어의 현실음을 대조한 일람표이다.

3.2 발음 사전의 체제와 내용

여기에서는 발음 사전이 갖추고 있어야 할 세부 사항과 이의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¹⁰⁾ 이러한 사항은 본문에 앞서 ‘일러두기’ 형식으로 미리 독자들에게 소개가 되어야 하며 독자는 이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발음 사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1 어휘 항목의 선정과 배열 원칙

자료 선정 : 앞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발음 사전의 표제어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어 어문 규정집’에 입각하여 표준어의 기준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일상 용어뿐 아니라 지명, 인명 등의 고유 명사를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 매체와 학교 교과서 등을 두루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사 및 자료 수집 과정이 있었다. 즉 남광우(1984 : 44-62)에 의하면 약 3년여 기간에 걸친 본격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 국어국문학, 언어학 분야의 학자뿐 아니라 국어 교사, 방송인 등 관련 분야의 인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학자들의 설문 조사에는 출신 지역을 고루 안배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정 지역의 방언인 경우 ‘명개, 물방개’¹¹⁾처럼 표준어와 같이 인정되는 것과, ‘늘, 외다’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뚜렷이 효용이 인정되는 준말, 사어(死語)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인용되는 고어(古語) 등을 모두 수록한다. 또한 소리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어휘는 별도의 항목으로 수록한다. 여기에는 모음의 길이 뿐 아니라 일부 방언의 성조의 차이 등도 포함된다.

표제어의 범위 :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표제어 선택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10) 따라서 일부 내용은 앞 장의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의 소개에 포함된 사항들이다.

11) 표준어는 ‘우렁쟁이, 선두리’이지만 비표준어 어휘가 널리 쓰이는 실정이다.

즉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에서처럼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파생, 활용 형태까지 포함시키는 방법과 영어 발음 사전에서처럼 필요한 경우 구, 문장등을 포함한 연속 발화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반 사전과 다른 발음 사전의 기능이 철자에 충실한 인위적 발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체의 발음을 수록하는 데 있으므로 가능한 관용적인 구나 문장 단계에까지 기술 범위가 넓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래어 처리 : 한편 외래어는 차용한 지 오래 되어 순수 우리말과 구별 없이 쓰이는 한자어, 만주어 등의 차용어뿐만 아니라 서양 외래어의 차용어도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양 외래어의 차용어는 '납포, 담배'처럼 유입된 시기가 오래 되어 순수 우리말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것과 '라디오, 버스'처럼 시기적으로 오래 되지 않아 외래어임이 쉽게 드러나는 사이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테니스, 팁, 포크'처럼 해당 외국어에서 직접 우리말로 유입된 것과 '빨, 텔레비, 라면'처럼 일본어 등 제3의 언어를 통한 외래어를 구분짓는 일도 필요한 일이다. 또 현재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신종 외래어의 처리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말을 다듬고 순화시키는 일관된 기준을 필요하게 한다. 그러나 이미 굳어지고 널리 쓰이고 또한 이를 대체할 국어 어휘가 없는 것은 한자어 차용어와 함께 모두 수록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배열 순서 : 표제어의 기술은 국어의 자모 순에 의해 배열된다. 따라서 국어 어문 규정에 따라 자음의 경우는 다음의 19개, 모음은 21개로 정하고 이의 순서를 따르는데 대부분의 일반 사전과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등 발음 사전이 이 원칙을 따른다.

- (15) 자음 : ㄱ, ㅋ, ㆁ,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ㅍ, ㅎ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ㅿ

중성인 받침의 경우 초성의 순서를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 역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 (16) ㄱ, ㅋ, ㆁ,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ㅍ, ㅎ

한편 'ㅇ, ㅅ, ㅆ, ㅈ, ㅊ, ㅋ, ㆁ, ㅍ, ㅎ'과 같은 고어 철자는 음가를 따라 위의 순서에 끼어 넣는다. 이러

한 기준은 ‘우리말 큰 사전’등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따를 수 있다.

3.2.2 국어의 음성 목록과 표기

표기 기호 : 어느 발음 사전이나 해당 언어의 표준 발음의 음소와 변이음의 목록을 제시하여 발음 표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표기의 보편성을 위해서 국제 음성 기호(IPA)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Wells(1990)의 발음 사전에는 영국의 표준 발음 목록과 미국 영어의 음소 목록이 IPA를 사용하여 비교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모음 표기 :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에서는 표준어의 모음으로 규정하는 9개의 단순모음을 설정하고, 모음의 길이(length)도 음소로 인정한다.

(17)

	i			
			u	u
	e	ə		
			ɔ	
	ɛ			ʌ
				a

이 사전의 표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단모음 ‘어’는 [ʌ]로, 장모음 ‘어’, 의 음가는 [ə]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리의 길이를 음소적 특징으로 보고 이를 본문의 어휘 항목 기술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는 전설 원순 모음 \emptyset 와 y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각각 we와 wi/yi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어 표준 발음으로 간주되지 않는 변이형이나 지역에 따른 방언적 차이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단모음에 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고, 방언과 세대에 따라 단모음의 수가 다르다. 또한 ‘어’의 음가가 소리의 장단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어야 한다는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의 규정은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가 이를 구별치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효성이 적은 인위적인 발음 교육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장단에 따른 음가의 차이를 세부적인 변이음의 정보로 각 어휘 항목에 수록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또한 '국어 어문 규정'의 '표준어 규정'에서는 10개의 모음을 단모음으로 정하여 '기, 기'를 단모음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이 두 모음을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10 모음을 인정하고 필요한 변이음을 IPA 기호를 사용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물론 주요 방언에 대한 모음 체계도 제시하는 것이 본문의 기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8) 단모음 : |,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소리값 : i, e, ε, y, ϕ, ɨ, ə, u, o, a
(wi) (we)

- (19) 모음 체계¹²⁾

i	y	i	(w)	u
e	ϕ	ə		o
ε		a		(Λ:)

위의 도표(18), (19)에서 괄호 속에 든 음성 기호는 변이음으로 쓰일 수 있는 소리들이다. 즉 (18)의 [wi]와 [we]는 단모음 [y]와 [ϕ]의 변이음을 나타낸다. (19)에서는 [w]의 경우 꼭 'ㅡ'의 변이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ㅜ'의 변이음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뜻이며, [Λ:]는 장모음으로만 나타나는 'ㅣ'의 변이음을 나타낸다.

활음(*glide*)으로는 [w]와 [j]를 인정하고 위의 모음 배열 순서에 제시된 이중 모음을

12) 영어의 발음 사전에서처럼 발음 기관의 모양에서는 조음 기관의 명칭이 그림과 함께 소개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Kenyon & Knott의 사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21개 가량의 미국 영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음이 세분되어 소개되고 있다.

i				
		ɨ		
	ɥ			u
e				
		ɜ [→]	ɝ	u
ε	ɜ	ə	ö	o
			ʌ	õ
æ				ɔ
a				
				ɑ ɶ

표준음으로 삼는다. 또한 기타 필요한 방언 차이에 따른 소리값은 IPA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ㄱ’로 표기는 소리값은 [jə], [jɑ:]등이나 [j:]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한글 발음 표기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IPA를 사용하여 정확한 기술을 한다.¹³⁾

자음 표기 : 자음의 표기에 있어서도 음운적 차이만을 나타내는 간략 표기(broad transcription) 대신 세부적인 음성적 차이까지 모두 기술하는 정밀 표기(narrow transcription)를 하는 것이 발음 사전의 특징이다. 즉 음운 현상에 의한 변이음을 정확히 기술해 주는 것이 발음 사전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위하여 국어에 나타나는 자음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의 소리값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듯이 한글 철자로는 나타내기 힘든 음운 현상에 의한 소리의 차이를 IPA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20)

	순음 (labial)	치경음 (alveolar)	구개음 (palatal)	연구개음 (velar)	성문음 (glottal)
파열음	ㅂ [p, b] ㅃ [p'] ㅍ [p ^h]	ㄷ [t, d] ㄸ [t'] ㅌ [t ^h]		ㄱ [k, g] ㅋ [k'] ㆁ [k ^h]	ㅇ [ʔ]
파찰음			ㅈ [c, ʃ] ㅉ [c'] ㅊ [c ^h]		
마찰음		ㅅ [s] ㅆ [s']	ㅅ [ʃ] ㅆ [ʃ']		ㅎ [h]
비 음	ㅁ [m]	ㄴ [n]	ㄴ [ɲ]	ㅇ [ŋ]	
유 음		ㄹ [l] ㄹ [r]	ㄹ [ʎ]		

13) 예를 들어 ‘병(病)’은 [pjɨ:ŋ]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같은 한글 철자를 가진 ‘병(瓶, 兵)’[pjəŋ]이나 ‘병(丙)’[pjɑ:ŋ]과 차이를 보인다.

위의 도표에서 한 가지 국어 철자가 둘 이상의 소리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는 경음이나 기음이 아닌 평음 ‘ㄱ, ㄷ, ㅂ, ㅈ’ 등이 첫소리로 발음될 때에는 무성음[k, t, p, tʃ]로 나타내지만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 [g, d, b, dʒ] 등으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한글 발음 표기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소리값의 차이를 IPA로 구별하여 표기한다. 또한 구개음화에 의한 ‘ㄴ, ㄷ’ 등의 변화는 [ɲ, ʃ] 등으로 하여 표기한다. ‘ㄹ’의 경우에도 첫소리로 나는 [l]과 유성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r], 구개음 [ʎ]을 구분한다. 한편 긴 소리를 ‘:’로 표기한다든가 기음(氣音, aspirated sound)을 [ʰ]로 표기하고 된소리(또는 성문음)는 자음 뒤에 [̚]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 등이 다른 사전과 동일하게 표시된다.(이에 대한 표기의 예는 위 (2)의 예문을 참조)

3.2.3 표기 방법

표기 순서 : 각 항목은 한글 철자를 표제어로 하는데, 명사의 경우에는 어원을 포함한 한자는 괄호 속에 표기한다. 한자어가 아닌 기타 외래어의 경우에도 우리말처럼 쓰이는 차용어는 해당 원어를 표시하고 같이 기술한다. 그 뒤에 국어 모국어로 하는 일반인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한글 발음 표기(장음 포함)를 하고 세부적인 음성 표기가 필요한 경우 IPA를 같이 사용한다. 한편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이 공존하는 경우 표준 발음과 변이음을 같이 기술한다. 이 때 표준 발음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은 괄호로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또한 같은 어기에서 나온 파생, 활용 형태는 한 표제어 밑에 수록한다. 물론 용언의 불규칙 활용형은 이를 명시하여 활용한다.(←표시는 어원을 나타내며, 발음 표시의 괄호는 수의적인 발음을 나타낸다.)

- (21) 가. 가게(←가가(假家))가:게[ka:ge]
 가갯방(~房)가:게방[-p' aŋ]
 가갯세(~稅)가:게세[-s'e]
 가갯집가:게집[-c'ip]
 나. 버스(←[영] bus) 버스/꽤스/꽤쓰[pəsɪ]/[p'əsɪ]
 -값[-k'ap]
 다. 기쁘다[으변] 기쁘다/(기뿌다)

사잇소리 : 파생, 활용형 뿐 아니라 합성어도 가능한 다수 수록한다. 특히 철자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사잇소리가 생기는 경우 등은 발음 사전에서 정확히 수록하고 이에 대한 현상을 따로 기술해 줌으로써 외국인 등 국어 음운 현상에 익숙치 않은 독자에게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23) 가. 강(江) 강[kɑŋ]
 -가 강까[kɑŋk'a]
 -변(邊) 강변[kɑŋbyən]
 나. 강(姜/康) 강[kɑŋ]
 -가(家) 강가[kɑŋga]

사잇소리 /ㅅ/의 음성 표기는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t]로 표기하는데 이 사잇소리 자체의 발음은 수의적이지만 다음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나 '여' 앞에서는 [n]으로 나타나며, 뒤따르는 자음 조음 위치에 동화되므로 이를 발음 표기에 반영한다.

- (24) 가. 냇가[nɛ(t)k'a]/[nɛkk'a]
 나. 부곡역[pugogŋyək]/[pugogŋək]
 깻잎[k'ɛnnip]
 다. 잇몸[inmom]/[immom]

품사별 표기 : 발음 사전에서는 일반 사전과 달리 필요한 경우에만 품사의 표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체언의 경우, 괄호 속에 표기되는 한자나 조사 등의 첨가가 있을 경우 굳이 품사 표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나 파생 접사의 첨가 등을 예시하는데 특히 형태나 발음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이를 반드시 수록한다.(◀기호는 한자어로 해당 어휘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 (25) 너<상대방의 닳춤말(汝)> 너[nə]
 -는 [-nɪn]
 -를 [-rɪl]
 의 너의/네[nəɿj]/[ne]
 네가 네가/(너가)/(니가) [nega]/[nəga]/[niga]

한편 인명, 지명등의 고유 명사는 다른 동음 이의어의 마찬가지로 특히 발음상 유의해야 할 어휘를 선정하여 표기한다.

- (26) 가. 조(曹) 조[co]
 조(趙) 조:[co:]
 나. 정(丁) 저[cəŋ]
 정(鄭) 정:[cjɨ:ŋ]/[cə:ŋ]

용언의 경우에도 체언에서와 비슷한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표제어는 기본형을 수록하고 변칙 활용 여부를 다음에 표기하고 필요한 활용의 예를 보여 준다.

- (27) 가볍다 [ㅂ 변] 가볍따[kabyəpt'a]
 —고 가볍꼬/—꾸/(가벼꼬)[-k'o]/[-k'u]
 지 가볍찌[-c'i]
 가벼워[kabyəwə]
 가벼울[kabyəul]

개별 변이음: 철자와 다른 발음을 나타내는 ‘의’와 같은 경우는 환경에 따른 가능한 발음을 모두 표기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본문 등 뒤에 따로 소개하여 참조하도록 한다.¹⁴⁾

- (28) 가. 의(義) 의[ɨj]/[wi]
 나. 주의(主義/注意) 주의/주이 [cuɨj]/[cu(w)i]/[cui]

14) Kenyon & Knott와 같은 영어 발음 사전에서도 지역적 방언의 차이가 아니라 순수히 어휘 항목에 따라 특이하게 발음이 되는 경우를 모아 사전의 사용법에서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휘 중간의 강세 없는 [i], war, horse, all 등에 나타나는 [ɔ], carry, charity등에 나타나는 [ɛ]와 [æ], dreary, weary, poor 등과 같은 특정한 어휘의 발음, [ɔə(r)], [æ(r)] 등과 같은 동부와 남부의 발음 양상 등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북부 지역 방언과 캐나다 영어의 발음이 아주 비슷함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서부 지방 사람들이 캐나다의 온타리오나 퀘벡주의 남부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그곳 사람들의 영어가 전혀 귀에 설게 들리지 않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either, neither은 [aɪðə], [naɪðə]로 발음하거나 rather나 can't를 [rɑðə], [kant]로 발음하는 영국식 영어의 흔적도 자주 발견됨도 표시한다.

민주주의 민주주이[*minjuju*]

다. 우리(我) [*uri*]

—의 —의/—에 [*-i*]/[*-e*]

또한 받침 소리의 발음이 활용 환경에 따라 변이형이 생긴다. 즉 표준 발음에서는 받침 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을 인정하고 ‘ㄱㄱ, ㄴㄴ’ 등의 겹받침을 각각 [ㄱ, ㄴ]으로 발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 방언 등 일부 지역어에서 뿐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권에서도 활용형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밟다’의 경우 표준말에서 대부분 [*pap'ta*]로 발음되지만 [*palt'a*] 역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넙다’의 경우 [*næpt'a*]보다는 [*nəlt'a*]가 더 많이 쓰이는 실정이라서 이를 표준 발음 규정에도 명시해 놓고 있다. 활용형에서는 더욱 변이가 심해서 ‘밟고, 넙고’ 등에서는 대부분 [*palk'o*]와 [*nəlk'o*]로 발음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형은 확실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통계적인 조사를 통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수록해야 한다.(괄호 속의 발음은 빈도수가 작은 비표준 발음을 나타냄).

(29) 가. 넙다 넙따/(넙따) [*nəlt'a*]/([*næpt'a*])

—고 넙꼬/(넙꼬) [*nəlk'o*]/([*nəpk'o*])

—으니 넙브니 [*nəlbɨni*]

나. 밟다 밟따/(밟따) [*papt'a*]/([*palt'a*])

—고 밟꼬/밟꼬 [*palk'o*]/[*pəpk'o*]

—지 밟찌/밟찌 [*palc'i*]/[*palc'i*]

한자어 변이음 : 한자어에는 쓰이는 용도나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에서처럼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예를 들어 수록한다.

(30) 가. 간(間) [*kan*]

—격(一隔) 간격[*kangyək*]

—식(一食) 간:식[*ka:nʃik*]

순(瞬) 순간[*sungan*]

문(門) 문간[*munk'an*]

나. 불(不) [*pul*]

- 만(一灣) 불만[pulman]
- 시(一時) 불씨[pul'si]
- 침객(一請客) 불청객[pulc^həŋgək]
- 부(不)
- 도(一渡) 부도[pudo]
- 정기(一定期) 부정기[pujəŋgi]

특히 (29나)와 같은 경우는 간단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므로 이를 뒤에 간략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변이음 : 발음 사전의 가장 큰 목표가 표준 발음을 기술하여 올바른 언어 생활과 연구의 지침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발음 사전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 이외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변이음을 수록하여 표준 발음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영어의 발음 사전들은 표준 발음과 지역간 발음 차이를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충실히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음, 모음 등 분절음의 차이뿐 아니라 강세와 같은 초분절적 요소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따라서 우리 국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 발음 외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발음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표기함으로써 방언적 특성을 참조할 수 있다. (〈 〉속의 이 약자는 해당 방언을 나타낸다.)

15) 예를 들어 Kenyon & Knott에서는 발음에 의한 미국 영어의 지역별 구분을 동부(E), 남부(S), 북부(N)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동부 지역에는 New York City 주변, Connecticut강 동쪽의 New England 지역이 포함된다. 남부는 Virgin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Tennessee, Florida, Georgia, Mississippi, Arkansas, Louisiana, Texas, West Virginia, Kentucky, Oklahoma, 그리고 Maryland의 일부가 포함된다. 한편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모두 북부 지역 발음권으로 분류된다.

다음의 표기는 aircraft의 발음으로, 북부에서는 [ˈɛr ˌkræft]와 [ˈæɹ ˌkræft]가 모두 쓰이고, 동부에서는 [ˈɛə ˌkræft], [ˈæə ˌkræft], [ˈɛə ˌkraɪft], [ˈæə ˌkraɪft], [ˈɛə ˌkraɪft], [ˈæə ˌkraɪft]가 모두 쓰일 수 있으나, 남부에서는 [ˈɛə ˌkræft]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인다.

aircraft ˈɛr ˌkræft, ˈæɹ-; E ˈɛə-, ˈæə-, ˌkraɪft, - ˌkraɪft;
S ˈæə,kræft

- (31) 가. 어른 어른[əri:n] || <충>으른[iri:n]
 위- 위더른/우더른 || <충>우드른[udri:n]
 나. 너<상대방의 낮춤말>(汝) 너[nə] || <경>니[ni]
 —는 [-ni:n] || <경> 니는[nini:n]
 —의 너의/네[nəi:j]/[ne] || <경>니[ni]
 네가 네가/(너가)/(니가)[nega]/[nəga]/[niga] || <경>니가[niga]

겹받침의 발음의 경우에는 특히 방언에 따라 표준어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표준어 발음에서는 ‘닭, 읽다’의 ‘ㄷ’이 [ɾ]으로 발음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상 방언 등에서는 대신 [ɾ]이 발음되는데 이를 어휘 항목의 기술에 추가함으로써 포괄적인 발음 사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 (32) 가. 닭(鷄) 닥[tak] || <경>달[tal]
 나. 읽다 익따[ikt'a] || <경>일따[ilt'a]
 —어 일거[ilgə] || <경>일러[illə]

한편 우리말의 방언적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성조에 관한 것으로 이를 발음 사전의 기술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이 성조를 가진 방언에서는 같은 철자로 표시된 어휘들이 성조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의미 전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영어에서 강세의 차이에 의해 뜻이 달라지는 경우보다 훨씬 광범위한 현상으로 방언적 변이음의 기술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예를 들어 경북 방언에서 ‘손’은 성조와 모음의 길이에 의해 세 가지로 의미가 분화된다. 표준에서는 이러한 의미 차이를 주어진 문맥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경상, 함경 방언 등 성조를 가진 지역에서는 성조만으로 쉽게 구별이 되므로 이를 발음 사전에 수록해 방언적 특성을 참조할 수 있다. (*기호는 한자어로 뜻을 나타낸다는 표시).¹⁶⁾

- (32) 손(*客) 손[son] || <경>¹손 [ˈson]
 손(*手) 손[son] || <경>₁손[son] <함> ¹손[ˈson]
 손(孫) 손:[so:n] || <경>₁손:[ˈso:n]

16) 여기 사용된 자료는 김경란(1988)에서 인용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는 높은 성조(high tone)를 나타내고 1는 낮은 성조(low tone)를 나타내는데, 성조가 '고, 중, 저'의 세 단계로 되어 있는 방언의 경우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물론 성조 체계에 대한 만족한 연구와 방언의 유형을 충분히 연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이다.¹⁷⁾

통계적 처리 : 위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대로 접받침의 발음이나 된소리 등에 있어서는 실제로 표준어 발음법대로 발음되지 않고 화자에 따라 비표준적 발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또한 노년층에서는 '흙[h+rk], 삼[sarm]' 등과 같이 접받침의 자음을 모두 발음하는 경향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음의 선호도를 설문지 등을 통해 표본 조사를 하여 이를 특정 어휘의 발음 기술에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위의 (1)에 예시된 바와 같은 Wells(1990)의 영어 발음 사전이 모범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를 시도하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사회 언어학적 분야의 관심 분야로, 우리말 발음 사전의 경우에도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4 주요 음운 규칙 목록

우리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하여 익숙치 않은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을 위하여 발음 사전의 표기 원칙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위해 국어의 주요 음운 규칙의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음운 규칙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여러 논문이나 전문 서적 등을 통해서 참고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시간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전문 용어 등의 해석이 쉽지 않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발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주요 음운 규칙을 모아 몇 가지를 예시함으로써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전의 앞이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표적 현상들을 항목별로 개관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접받침의 발음은 표준어 규정의

17) 물론 경상 방언의 경우에도 경남과 경북이 다르고 같은 경북 지역에서도 대구와 다른 지역의 성조가 차이가 나므로 결코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18) Wells(1990)의 영어 발음 사전에서는 'affricates, syllabic consonant' 등과 같은 주요 음성학적 용어 뿐 아니라 '기음화(aspiration), 동시 조음(coarticulation), 생략(elision), 강세 이동(stress shift)' 등의 보편적인 영어의 주요 음운 현상을 본문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을 제시하고 몇가지 예를 제시한다. 또한 ‘늪다’와 같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따로 예외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리의 동화에는 ‘감기’가 [강기]로 발음되는 자음의 조음 위치 동화, ‘칼날’이 [칼랄]로 발음되는 ‘ㄴ’의 설측음화 현상,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저해음(obstruents)의 비음동화 등이 있다.

된소리되기에는 사이시옷에 의한 된소리 현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몇 가지 예를 든다. 또한 ‘책상[책쌍]’처럼 저해음 뒤의 자음이 된소리 되는 현상, ‘줄 돈[줄 폰], 숨다[숨따]’와 같이 형태, 음운적 현상들을 유형별로 예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역[부산녁]’과 같이 사이시옷의 또다른 형태인 ‘ㄴ-첨가 현상’도 이와 함께 기술한다.

끝으로 위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한자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30나)의 ‘不[불/부]’의 발음이나 ‘一切[일체]’와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된다.

3.2.5 기타 특기 사항

이제까지 소개된 내용 이외에도 좋은 발음 사전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표기 기준을 미리 소개해 줌으로써 부록 등에 수록될 ‘외래어 표기 목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래어 표기 기준은 ‘국어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하며 각 표기 기준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를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본문 내용에 앞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약어와 부호표이다. 이는 사전마다 독특한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호 및 약어를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

끝으로 Kenyon & Knott의 발음 사전에서처럼 본문의 각 페이지마다 밑부분에 발음 지침(Key to pronunciation)을 첨가하는 것도 독자들이 국제 음성 기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Kenyon & Knott의 사전에서는 대표적 발음을 보여 줄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이를 매 페이지 밑에 나타내어 독자들이 사전의 맨 앞 부분으로 돌아가 발음 기호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있다.¹⁹⁾ 따라서 국어의 발음 사전에서도 IPA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 대표적인 예를 제시함으

19) Kenyon & Knott에서 사용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bee bi | pity 'piti | rate ret | yet jɛt | sang sæŋ | angry 'æŋgrɪ | bath bæθ; E baθ
| ah a | far far | watch wɛtʃ, wɒtʃ | jaw dʒɔ | gorge ɡɔːrdʒ | go go | full ful | tooth

로써 발음 사전의 세부적인 IPA 표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이제까지 효율적인 발음 사전의 특성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발음 사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우선 일반 사전과 구분되는 발음 사전 자체의 필요성을 소개할 필요도 있었고, 또 기존 발음 사전을 분석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서로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어의 발음 사전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이 글의 구성을 보면 우선 서론에서 이 글의 목적을 제시하고, 발음 사전이 무엇이며 일반 사전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발음 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내용을 수록하는가에 대해 영어와 국어의 대표적 발음 사전 3가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표제어 항목의 선정, 발음 표기 등을 다루었다. 특히 발음 표기에 있어서는 대표적 발음 사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 발음 설정 기준, 표기 방법, 표기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기존 발음 사전의 미비점을 보완한 바람직한 발음 사전이 수록하여야 할 내용을 항목별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음 사전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발음 사전의 내용 편에서는 어휘 항목의 선정과 배열 원칙에서 자료 선정, 표제어 선택의 범위, 외래어 처리 문제, 표제어 배열 순서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국어의 음성 목록을 제시하고 표기 기호를 소개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국제 음성 기호를 사용하여 모음과 자음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표기 방법에 있어서는 표기 순서, 사잇소리 처리 문제, 품사에 따른 표기 기준, 개별 변이음, 한자어 변이음, 지역간 변이음 등의 표기 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준이 모호하거나 표준 발음과 실제 발음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조사할 것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끝으로 국어 음운 규칙의 판별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간략한 주요 음운 현상의 목록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고 IPA의 용례를 본문 속에 첨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통해 철자와 발음 사이에 거리가 큰 영어의 경우에 못지 않게 우

tuθ | further fʒðə | ES ˈfɜːðə | custom ˈkʌstəm | while hwail | how au | toy tɔɪ | using
 ɹjuːzɪŋ | fuse fjuz, fɹuz | dish dɪʃ | vision ˈvɪʒən | Eden ˈiːdɪn | cradle ˈkredl | keep ˈ
 em kɪpɪn

리말에도 표준 발음 연구, 방언 연구,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국어의 발음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여기 제시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거쳐 꾸준히 다듬어져야 할 일들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88), 국어 어문 규정집,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민수·홍용선(1969), 종합 국어 사전, 서울 : 어문각.
- 남광우(1984), 한국어의 발음 연구(I), 서울 : 일조각.
- 남광우·이철수·유만근(1984),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남기심(1988), 국어 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사전 편찬학 연구 제1집, 서울 : 탐출판사.
- 신기철·신용철(1975),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삼성출판사.
- 이은정(1992), 우리말 발음 사전, 서울 : 백산출판사.
-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 사전, 서울 : 정음문화사.
- 한국 교열 기자회(1982),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일지사.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어문각.
- 김경란(Kim, Gyung-Ran, 1988), *The Pitch-accent System of the Taegu Dialect of Korean with Emphasis on tone Sandhi at the Phrasal Leve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G. & D. Merriam Company(197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 : G. & C. Merriam Company, Publishers.
- Keynyon, John S. and Thomas A. Knott(1953),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Springfield, Mass : G. & C. Merriam Company, Publishers.
- Kiparsky, Paul(1982), Lexical phonology and morphology, In I. S. Yang(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 Hanshin Publishing Co.
- Longman Group(1979),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 Longman Group Ltd.

Siegel, Dorothy(1974),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Wells, J. C.(1990), *Longman Pronunciation Dictionary*, Essex, England : Longman Group Ltd.